

부산,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정 ‘2023 세계 최고 여행지’

미국 지리학회가 발행하는 자연·문화유산 탐사 전문 매체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이 부산을 ‘2023년 여행할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도시’로 꼽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2023 세계 여행지 추천’ 목록을 공개하며 부산을 ‘놀랍도록 멋진 여행지·여행체험 틈 25’(25 breathtaking places and experiences for 2023)에 포함했다.



▲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부산을 ‘2023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모습(아래). 사진=내셔널지오그래픽 캡처/부산국제영화제

문화(Culture)·자연(Nature)·모험(Adventure)·가족(Family)·커뮤니티(Community) 5개 범주로 세분된 이 목록에서 부산은 “역사와 문화유산에 침잠해볼 수 있는” 문화 부문 5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부산을 한국에서 2번째 큰 도

아울러 부산은 산과 해변을 모두 갖췄다면서 특히 한국에서 가장 긴 낙동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낙동강 하구는 큰 고니를 비롯한 멸종 위기 물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창의적 에너지가 넘치는 최대 항구도시, 활기찬 문화 허브라면서 “이곳에서도 K-팝 뮤직을 볼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인정받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30년 가까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은 수제맥주와 커피로도 유명하다.”며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로 쓰이다 2014년 새로 문을 연 도심 한복판의 약 54만m² 규모 ‘부산시민공원’을 산책해 보는 것도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화를 받는 고령자 가운데 생계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년부터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의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한 숫자다.

비율 상으로는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49.7%였다.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창업 전선에도 뛰어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7년 159만2,000명에서 2021년 193만3,000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북한, 분단 이후 첫 ‘NLL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았다.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10시간 이상에 걸쳐 4차례로 나눠 이뤄졌다. 이 중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km·속초 동방 57km·울릉 서북방 167km 해역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 9개월 만이다.

한국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공군 F 15K, KF 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 ER(사거리 278km)’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쏘았다.

북한의 도발은 7차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양한 수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기술의 표준화·안정화·소형화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과 러시아는 1번씩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핵무장한 인도도 2번 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핵 기술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손 못 놓는 노인 5년새 46% 증가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생계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년부터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의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한 숫자다.

비율 상으로는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49.7%였다.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